

# 광주에서 무릎 꿇고 울먹인 김종인 “죄송하고 또 죄송”

###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해 망언 등 과오 진심어린 사과 “민주화 운동, 알고도 침묵한 건 역사의 법정에선 유죄” 달라진 호남 민심 “김종인 위원장 5·18묘지 방문 환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과거를 밝히며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것도 유죄”라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통합당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이 당의 불모지인 광주를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도착하자마자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고 추모했다. 방명록에는 ‘5·18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김 위원장은 특히 추모탑 앞에서 분향을 마친 후 지난 과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당 지도부와 함께 약 15초 가량 무릎을 꿇고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5·18민주묘지 내 행방불명자 묘역도 참배했다. 행방불명자 묘역은 5·18 민주화 운동 중 행방이 확실치 않은 희생자들의 묘를 추모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다. 행방불명자 묘역까지 참배한 건 “이름없는 희생자까지 잊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통합당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980년 5월 17일 저는 대학 연구소에서 밀려있는 강의 준비에 열중했다. 광주 희생자 발생은 얼마간 시

간이 지나고 알았다”며 “알고도 침묵하고 눈감은 행위의 소극성 역시 작지 않은 잘못이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것도 유죄다”라고 말했다.

또 “신군부 국보위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심에 빠진 광주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시 한 번 이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5·18 망언을 의식한 듯 “광주의 비극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어긋난 행동에 저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며 “표현의 자유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는 우리를 지탱하는 양대 기둥으로 하나도 부정할 수 없다. 적지 않은 희생과 고통이 따랐다. 상처로 남아 남은 이념 대립을 계속하며 사회적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으로 완성될 수 있지만 권력자의 진심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시대를 대표해 제가 대표해 무릎을 꿇는다”며 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먹었다. 그러면서 “호남 상처를 쉬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5·18 광주시민에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너무 늦게 찾았다. 벌써 백년 사죄해야 하는데 이제야 첫 걸음, 작은 걸음을 하겠다”며 애도를 표했다.

유족에 대해서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민주화 유공자 여

러분에게도 감사와 용서를 구한다. 미약한 발걸음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광주행은 본격적인 당의 서진(西進) 전략 일환으로 호남 민심을 향한 구애 성격이 강하지만 지난해 황교안 대표가 방문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민주묘지 정문 입구에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5·18국립묘지 방문을 환

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5·18 연금법추진위원회가 환영을 표했다.

한 시민은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가 괴물인가. 우리는 돈도 필요 없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시민은 “미래통합당이 망언 의원을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집회→“야외선 괜찮다”→재판불참...차명진 정치인 첫 확진

### 광화문 집회 참석 했다 감염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병원에 이송됐다.

경기 가평군보건소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18일 오전 거주지인 청평면 보건지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았으며 19일 오전 4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자가 격리 중 검사를 받았다.

가평군 보건소는 “지역에서 격리중인 차 전 의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병원 배정을 받아 오후 2시에 보건소 앰블



런스를 이용해 이송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18일 검사를 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평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주변 사람들이 괜한 걱정을 하기에 할 수 없이 검사를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군대책본부는 차 전 의원에 대한 역학조사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차 전 의원은 18일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7일 오후 12시 7분 방금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YTN에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환자가 드글드글한데 왜 거기 갔냐며 통곡하십니다. 제가 화를 내며 확진 받은 사람 제일교회 사람들은 거기 안갔고 야외에선 코로나 안 옮기니까 걱정말라, 뺨개이 방송 거짓말 하는 거 먼저 말라 했는데 계속 우십니다. 나쁜 놈들 어떻게 응징해야 합니까?”라고 올렸다.

뉴스스

## 안철수·진중권 유튜브대담 2탄 “박원순 장례 불참 이유 밝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의 ‘유튜브 대담’ 2편 영상이 오는 23일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인연이 있던 안 대표가 왜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소회도 밝힐 것”이라며 “23일 오전 11시에 안철수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고 박 전 시장과 단일화한 인연이 있다.

이후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두 사람의 대담 영상 1탄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19일 기준 조회 수 41만을 기록했다.

뉴스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